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16 (월요일)

[오늘의 한 줄]

외국인이 하루 1.4조원을 내다 팔고 연기금은 5년 만에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3.59% 급락해 5,100선에 턱걸이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는 8% 안팎으로 무너졌습니다. '젠슨 황 쇼크'가 엔비디아의 지갑 얘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16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100.50 (-190.03, -3.59%).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0.28% 오른 5,305.40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하락 전환해 장중 5,069.83(-4.17%)까지 밀렸습니다. 연중 고점(6/22 9,114.55) 대비 -44.0%, 하반기 고점(9/23 7,080.92) 대비 -28.0%. [계산]
- 코스닥 665.65 (-34.01, -4.86%). 장중 664.98(-4.96%)까지 하락. 코스닥 시총 상위 반도체 장비주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11.88%, 심텍 -13.38%).
- 공포지수(VKOSPI) 52.64. 금요일(50.15)보다 다시 올랐습니다.
- 반도체: 삼성전자 196,800원 (-4.47%, '20만 전자' 반납), SK하이닉스 112만원 (-7.89%), 삼성전기 785,000원 (-8.19%). 외국인 순매도 1·2위가 삼성전자(6,193억원)와 SK하이닉스(2,241억원)였습니다.
- 전력기기 3종: HD현대일렉트릭 401,000원 (-3.61%), 효성중공업 174.3만원 (-3.54%), LS일렉트릭 118,600원 (-3.81%).
- 원화는 21시 기준 1,335.6원 (15시 30분 마감가는 1.0원 강세인 1,335.7원).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 2건, CoreJang(VKOSPI), 네이버 금융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6134900008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6034351008
https://www.corejang.co.kr/briefs/2026-11-16-close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1조3,838억원. 2거래일 연속 '팔자'로, 규모가 금요일(-5,475억원)의 2.5배로 커졌습니다. 기관 -4,513억원 (연기금등 -5,647억원, 투신 -2,143억원, 사모 -2,088억원, 반면 금융투자 +5,379억원), 개인 +1조3,398억원, 기타법인 +4,883억원.
- 서울경제신문은 연기금 매도 규모가 5년 만에 최대라고 보도했습니다.
- 코스닥: 외국인 -2,112억원, 기관 -1,540억원, 개인 +3,767억원.
- 코스피200 선물에서는 외국인 +3,238억원, 개인 +717억원 순매수, 기관 -3,912억원 순매도.
- 누적(9/23부터, 네이버 기준 집계 이어 계산):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9조9,163억원, 코스닥 약 2조3,282억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6128500008

■ 미국 시장 (11/13 금요일 마감)

- 혼조: 다우 +0.10% (52,347.55), S&P500 -0.40% (7,561.67), 나스닥 -0.91% (25,136.27),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43% (10,146.32).
- 엔비디아 162.85달러 (-2.01%), 아이온큐 28.88달러 (-6.42%), 코어위브 53.13달러 (-6.13%), 샌디스크 -5.59%, 마이크론 -2.52%, 팔란티어 167.99달러 (-2.09%), 아마존 266.66달러 (-0.29%). 반면 메타 +2.90%, 마이크로소프트 +0.17%. 아폴로 +1.75%, KKR +0.87%, 블랙스톤 +1.39%로 사모대출 3사는 반등했습니다.
- 장 마감 후 공개된 연준 금융안정보고서(11/13)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고평가와 금융위험을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기업과 자금력이 취약한 데이터센터 개발기업 간 순환금융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AI 투자 수익성이 악화하면 손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인용, 연준 공식 사이트에서 보고서 원문 확인).
- 오늘(16일, 현지)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고, 18일에는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출처: 야후파이낸스, 연합뉴스, 연준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files/financial-stability-report-20261113.pdf

■ 엔비디아: '열린 지갑' 시대의 끝? 내일 첫 실적

- 월스트리트저널(11/15):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매출 공유 계약을 멈췄고, 크레스 임시 CEO 체제에서 AI 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레스는 그동안 회사의 컴퓨팅 관련 대형 거래 상당수에 제동을 걸어 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인용, WSJ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들로 별도 확인). UBS는 최대 500억달러가 AI 시장에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제 인용).
- 파이낸셜타임스: 황 전 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 다수 매체가 같은 내용 확인).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복귀가 현실화하면 AI 생태계의 협업과 투자 기조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경영 불확실성 속 추가 노이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AI 칩 불법 판매 조사와 수출통제 강화 입법이 진행 중이고, 미 법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해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 내일 실적 프리뷰: 17일(현지) 장 마감 후, 한국시간 18일 새벽. 시장 컨센서스(비저블알파, 11/12 집계)는 매출 1,093억달러(약 146조원, 전년 대비 +92%)로 회사 가이던스(1,080억달러 ±2%, 중국향 제외) 중간값을 소폭 웃돕니다.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은 1,018억달러로 전체의 93%. 관전 포인트는 새 경영진의 4분기 전망과 차세대 칩 '베라 루빈' 출하 계획입니다. 루빈에는 HBM4가 탑재되므로 출하 속도가 삼성·SK의 메모리 물량과 직결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 WSJ, 로이터(인베스팅닷컴)

https://www.wsj.com/tech/nvidia-pauses-revenue-sharing-deals-with-ai-cloud-companies-9c71454e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jensen-huang-discusses-comeback-as-nvidia-ceo-with-allies-ft-reports-5028065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116500241

■ 앤트로픽 IPO: 공모 희망가 70~78달러, 티커 ANT

- SEC 증권신고서 기준: 보통주 8억2,500만주를 주당 70~78달러에 공모합니다. 이 중 신주가 약 8억135만주, 기존 주주 보유분이 약 2,365만주입니다. 상단 기준 공모 규모 약 644억달러.
- 별도 사모 260억달러에는 구글·엔비디아·AMD가 참여합니다. 합산 최대 904억달러.
- 신고서상 3분기 매출은 170억달러(전년 대비 12배 이상), 3분기 순손실은 233억달러. 컴퓨팅·인프라 지출 약정이 8,954억달러에 달하고 향후 12개월 내 지출액은 700억달러로 제시됐습니다.
- 11/18 (수) 공모가 확정, 11/19 (목) 나스닥 거래 시작 예정입니다. [계산]
출처: 디지털투데이(SEC 신고서 인용)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296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 (11/13 재무부 확정): 10년물 5.15% (+5bp). 확정치 기준 사흘 연속 상승입니다. 2년물 4.88%, 30년물 5.47%, 3개월물 4.32%. 10년-2년 스프레드 +0.27%p. [계산]
- 한국 국채 3년 3.739% (-1.7bp). 일본 30년물은 오늘 확인 가능한 값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확인치 3.985%, 11/13 오전).
- 유가는 급등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브렌트 94.87달러 (-1.0%), WTI 87.92달러 (한국시간 14시 기준, 진행 중).
- 금 3,877달러 (-0.2%, 진행 중).
-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 항공유 갤런당 4.035달러, 경유 4.204달러 (11/11 기준일). 새 주차는 아직 미게시.
출처: 미 재무부, 네이버 금융, EIA
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6

■ AI 가격 신호 3종 (11/13 미국장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열기의 온도를 재는 세 가지 온도계입니다.
1. 반도체 대 나스닥 괴리: 최근 20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8.90%, 나스닥 -3.84%로 괴리 -5.06%p. 사흘 연속 축소 후 다시 확대. [계산]
2. 빅테크 대 취약 AI 평균 낙폭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알파벳) 평균 -20.35%, 취약 5종(팔란티어·아이온큐·코어위브·오라클·블루아울) 평균 -41.90%.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8.93% (전 관측 -8.09%에서 확대). [계산]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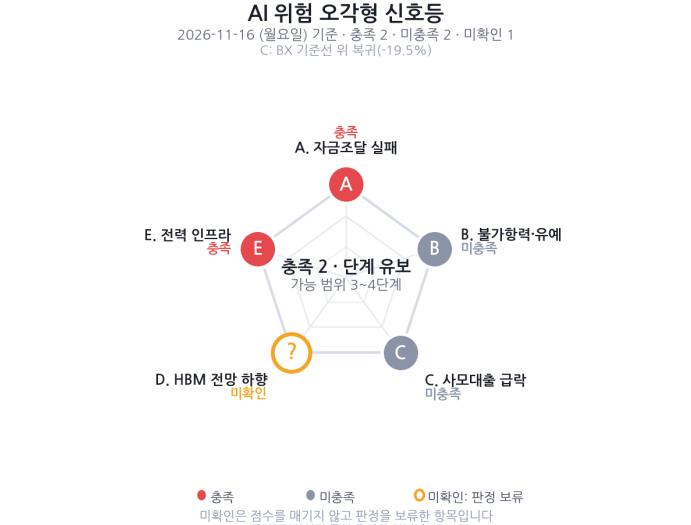
- 오늘의 급락은 '황 쇼크'의 잔파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하락입니다. 핵심은 엔비디아의 지갑입니다. WSJ이 보도한 '매출 공유 계약 중단'은 AI 생태계의 순환금융(칩 회사가 고객사에 돈을 대고, 고객사가 그 돈으로 칩을 사는 구조)의 수도꼭지를 새 경영진이 잠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로 바로 그 구조를 경고했습니다. 외국인 1.4조원 매도와 연기금의 5년 만 최대 매도는 이 구조 변화에 대한 기관의 답입니다.
- 반대편 근거도 있습니다. 앤트로픽에는 6배의 돈이 몰렸고, 엔비디아 매출 컨센서스는 가이던스를 웃돌며, 개인은 오늘 1.3조원을 받아냈습니다. '최상위로의 자금 집중, 하위로의 자금 단절'이라는 양극화 그림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1) 11/17 엔비디아 실적 - 매출보다 4분기 전망과 베라 루빈 출하 계획, 그리고 크레스가 고객사 투자 기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11/19 앤트로픽 상장 완료 시 A 조건 해제 검토. (3) 황 복귀론이 실제 움직임으로 번지는지.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100.50 아래일 것" - T+1(11/17, 화), T+5(11/23, 월)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어제와 닷새 전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13 판단: "코스피 종가가 5,290.53 아래일 것" (T+1, 11/16 검증) → 실제 종가 5,100.50. 적중.
- 11/9 판단: "코스피 종가가 5,018.85 아래일 것" (T+5, 11/16 검증) → 실제 종가 5,100.50. 빗나감. 중간의 반등 랠리가 기준선 위로 끌어올린 뒤 오늘 급락했지만 기준선(5,018.85)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 해석: 단기 하방 경고는 계속 맞고 있지만, 닷새 뒤를 보는 전망은 반등 사이클에 번번이 걸립니다. 누계 33건 중 19건 적중.
- 한계: 이 복기는 '종가가 어제보다 낮을지'만 맞추는 단순한 규칙의 성적표이고,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적인 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력의 증거가 아니라 참고 기록입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 (유지). 네비우스의 하이일드 채권 철회와 발행 보류 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WSJ의 '엔비디아 매출 공유 계약 중단' 보도는 자금조달 환경이 더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방향의 신호입니다. 11/19 앤트로픽 상장 완료를 확인하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출처: 로이터, 온인베스트(WSJ 인용)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banks-investors-grow-wary-of-ai-debt-spooked-by-marketselloff-5011246
https://en.oninvest.com/article/wsj-weak-links-suffer-first-as-high-yield-bond-market-all-but-closes-to-neoclouds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새로 확인된 통보는 없습니다. 다만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순환금융 구조의 손실 전이를 경고한 점은 이 조건의 전조로 기록해 둡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3사가 금요일 반등하면서 블랙스톤은 -19.51%로 기준선 위로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4.01%, KKR -14.96% (11/13 종가).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회사 공시 하향은 없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이 조건의 분기점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4 후공정 장비 발주를 협력사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아시아타임즈)는 수요 유지 쪽 근거입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버노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GE버노바 -31.64% (11/13 종가), HD현대일렉트릭 -66.42%, 효성중공업 -56.50%, LS일렉트릭 -58.39% (한국 3종 11/16 마감). [계산]

- 종합: 충족 조건은 A와 E 2개('3단계' 해당).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3~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